

(2026년 10월 20일 화요일 6면)

식품접객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사업 이대로 일몰시킬 것인가



송파구의회 최상진 의원
삼전동, 잠실3동

본 의원은 식품접객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매 지원 사업이 집행기관의 소극적인 행정과 불합리한 지원 기준으로 일몰 위기에 놓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2025년 송파구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7,058톤으로 하루 평균 19.3톤에 달합니다. 이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지만, 올해 신청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초 예산 심의 당시 50%였던 지원 비율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25%로 낮아졌고, 최대 지원금 250만원에 5년간 의무 사용 조건까지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구로구는 70%, 서초구는 5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도 600만원에 달합니다. 신청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 비율과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의무 사용 기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 기준을 개선해 사업을 재공고하고, 당초 취지에 맞게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